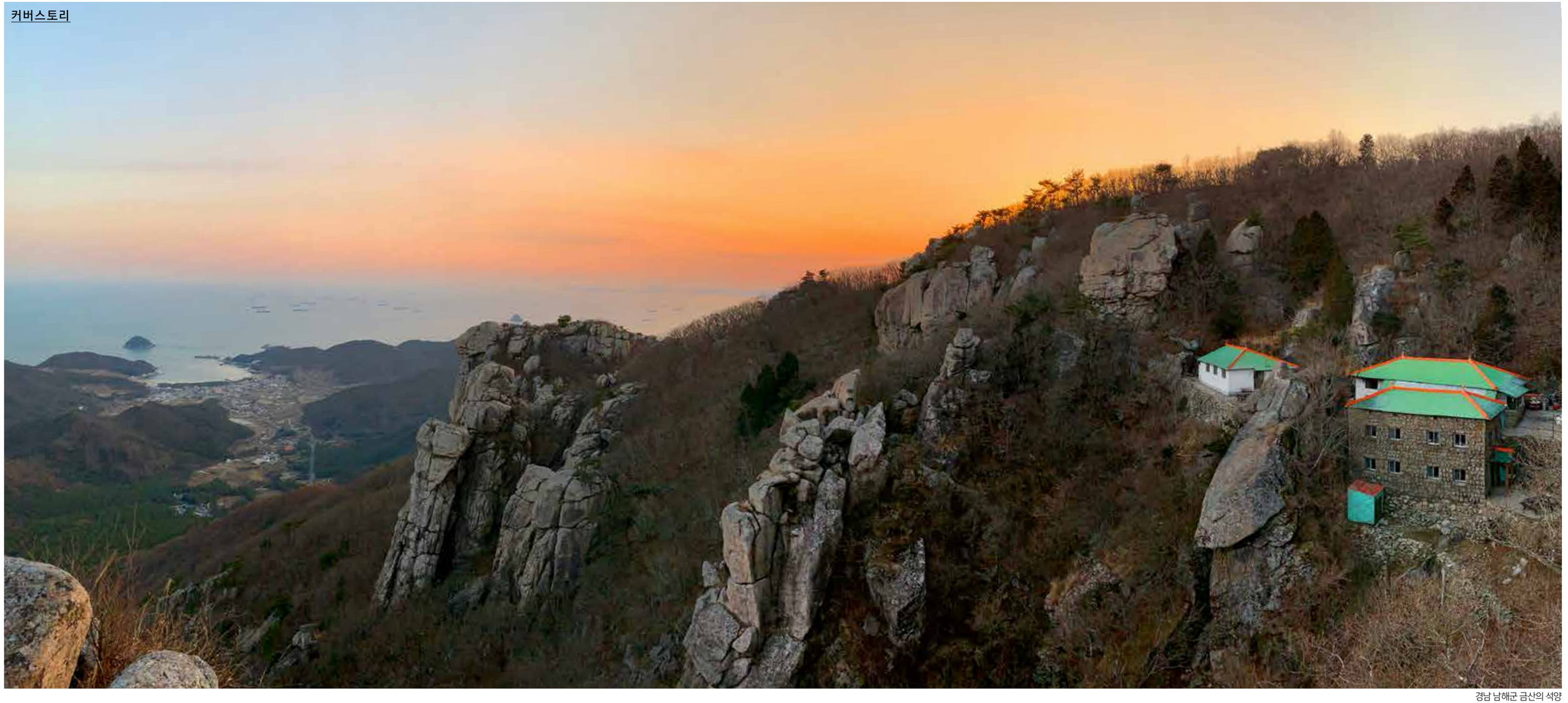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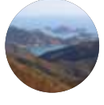


경남 남해군 금산의 석양

위대한 유산

한글

 바다와 섬

고려인삼

한국의 미(美)를 보여주는 단아한 국토, 심오한 문화, 세계 시장에서도 손색없는 농업과 어업…. 선조가 물려준 유산은 절대 작지 않다. 공기처럼 익숙해 그 가치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혹은 우리 자신이 훼손해놓고 변변찮다고 한탄한다. 반만년 삶이 남긴 자취는 한반도 구석구석에 널려 있다. 위대한 유산, 아름다운 유산, 숨은 유산까지….

한국인을 지성으로 이끈 한글

여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의 훈민정음 조각

한국은 1377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찍은 데 이어 1443년 한글을 만들었다. 한국인은 인쇄 혁명과 문자 혁명을 이루어 누구보다 지식 세계의 문 앞에 먼저 도달했지만 세계사를 주도하지는 못했다. 지적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은 앞으로 세계 지성을 이끌 수 있을까. 한글에 그 열쇠가 있지 않을까.

글 현경숙 · **사진** 조보희 기자

1 세종대왕 표준 영정. 운보 김기창이 그렸다.
2 한글 창제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
3 여주 영릉 입구에 있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

민주주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있을지 모른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영어나 한자를 읽고 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현대 한국인의 삶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한글을 빼놓을 수 없다. 외국에 나가면 나를 보호해줄 조국이 그리운 만큼이나 한글도 그리워진다.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이 있기에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고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다. 외국어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고통에 가까울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말할 때 흔히 과학성과 우수성을 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한글이 우리 글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닐까. 우리 말을 우리 말답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글을 갖고 있다는 건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다. 한글이 없다면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말을 '我讀書'(아독서) 혹은 'I read the book'(아이 리드 더 북) 혹은 'Naneun chakeul ikneunda'(나는 책을 읽는다)로 쓸지 모른다. 한자나 영어로 쓰거나 로마자를 빌려서 말이다. 그렇다면 글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할 것인가. 생각을 치밀하게 가다듬을 수도, 감정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지성의 발달을 가로막을 것이고, 민족의 쇠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글이 있어 고맙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글이 있었기에 '토지', '임꺽정' 같은 대서사, '향수' 같은 토속 서정의 시, '제비는 푸른 하늘 구경 다 하고' 같은 예쁜 동시, 신윤복 선생의 '처음처럼' 같은 멋스러운 글자체 등이 나올 수 있었다. 우리 말을 우리 글로 온전히 옮길 수 있기에 문학은 다채로운 개성을 띠고 우리 말의 표현력은 풍부해진다. 글이 발달하면 말의 묘미가 깊어진다.

한글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공통된 것 같다. 국립한글박물관이 2018년 1천 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글문화에 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한 결과, 86%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생각했다. 73%는 '한글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 89%는 '한글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문화유산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 한글, 현존하는 세계 최고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 팔만대장경, 석굴암, 불국사 등 후보는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서울 숭례문이다. 숭례문은 국민 사이에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각인돼 있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을 상징하다시피 한다. 그러나 국보 번호가 문화재 가치와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 편의에 따른 것으로 일제 강점기 행정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 국보 1호는 교토 고류지(廣隆寺 광륭사)에 소장된 목조 미륵보살반가상이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 국보 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거의 같은 형식이어서 삼국시대에 제작돼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한반도 전래 유물로 보이는 이 불상을 국보 1호로 정한 것 역시 여러 문화유산 중 이 문화재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 편의 때문이었다. 숭례문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게 아니다. 한글이 우리의 가장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아닐까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훈민정음은 창제 당시 한글에 붙여진 이름이다. 세종은 한글을 만든 뒤 한자로 설명한 문자 해설서 '훈민정음'을 펴냈다. 훈민정음 해설서이기 때문에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한다. 문자를 만든 뒤 그 문자의 창제자, 창제 목적, 창제 원리, 사용법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남아있는 사례는 훈민정음해례본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훈민정음해례본은 국보 70호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세운 문화재 수집가인 간송 전형필이 해례본을 수집한 과정은 감동적이다. 간송은 우여곡절 끝에 당시 경성

1

2

1 복원된 영릉 재실
2 눈 덮인 세종대왕 영릉
3 새 단장을 마치고 개방된 세종대왕 영릉 능역

3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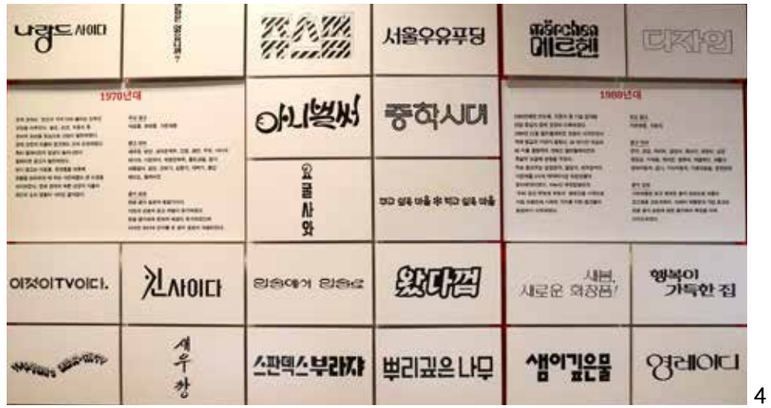
1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2 한글교육용 옛 초등학교 교과서 3 세종이 지은 한글 가사인 월인천강지곡 4 광고에 사용된 다양한 한글 디자인 5 한글박물관 상설전시장

의 비싼 기와집 10채 값에 해당하는 거금을 주고 해례본을 손에 넣었다. 그는 매도자에게 값을 깎기는커녕 일부러 높은 가격을 쳐주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가격을 흥정하거나 따질 대상이 아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선현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다. 언어생활에 깊은 영향을 준 세종대왕을 특히 흠모한다. 세종은 재위 32년 동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뤄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고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1970년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과 충남 아산에 있는 이순신 장군 사당인 현충사에 대해 대대적인 성역화 작업을 벌였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두 지도자를 기림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성역화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다만 세종대왕릉은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고증을 소홀히 해 원형을 훼손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문화재청은 세종대왕릉 복원 사업을 벌였다. 유네스코가 왕릉의 원형 복원 및 보존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있는 여주 영릉은 6년 2개월간의 긴 복원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한글날인 10월 9일 재개방했다. 영릉을 찾는 관광객은 적지 않다. 매년 60만 명가량 관람한다. 감염병 사태가 터진 지난해에도 약 40만 명이 다녀갔다. 탐방객들이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시 열린 영릉은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언어학계도 인정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4

5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몇 년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주재했던 언론인이 전한 얘기다. 한 인이 꽤 많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노래방이 몇 군데 있는데, 일부 현지인들은 한국어 가사가 자막으로 흐르는 노래방 기기를 쳐다보며 한국 대중가요를 곧잘 불렀다고 한다. 가령 '아~ 그리워라 … '라는 가사를 뜻도 모르면서 그럴싸하게 부를 수 있던 것은 'ㅇ'와 'ㅏ'가 모여 '아'가 되고 'ㄱ'과 'ㅡ'가 합쳐서 '그'가 되는 한글의 체계를 금방 깨쳤기 때문이었다.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도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깨우치고, 어

1

2

3

4

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문자가 아닌 한국어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 한국어는 조사가 다양하고 어미변화가 많은데다 존대어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글은 깨치기 쉽지만, 한국말은 배우기 어려운 언어 '톱 5'에 든다는 얘기도 있다. 몇 해 전에 만났던 국어학자는 한국어는 동사 변화가 무려 60~70가지나 돼 외국인들이 배울 때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령 '살다'라는 동사는 살고, 살아서, 사니, 사니까 등으로 어미가 다양하게 변한다. 변화무쌍한 동사 변화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프랑스어나 독일어에 비할 바 아니다.

한글 창제에 깃들어 있는 세종의 애민(愛民)과 개혁 정신, 쉬운 문자의 과학성은 민주주의와 맞닿는다. 세종은 지배계층인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문자와 지식의 세계를 일반 백성에게 개방했다. 쉬운 한글의 보급은 지식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근대를 향한 징후이기도 했다. 한글이 없었다면 광복 후 그처럼 빠른 속도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을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근저에는 쉬운 문자가 가능케 한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성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긴다. 한글은 산업화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 공급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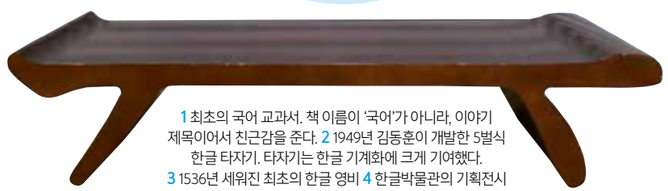
한글은 글자 자체가 예술이 되기도 한다. 한글을 쓰고, 보고, 읽고, 느끼는 가운데 우리는 한글 자형에 민감해지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글자체를 통해 감성을 표현한다. 한글은 읽고 쓰는 것뿐 아니라 보고 느끼는 문자가 됐다. 한글 손멋글씨(캘리그라피)가 발달하고 한글 자체가 지닌 미적, 조형적 가치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글은 과학성, 체계성으로 인해 정보화 시대에 더 빛나는 문자다. 서양에서 개발된 컴퓨터는 로마자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으나 한글 역시 발 빠른 디지털화로 정보 입출력 언어로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한글 워드프로세서, 자판, 한글 코드, 음성·필기체 인식에 의한 한글 입력 방식 개발, 자동 통·번역 등은 한글 정보화의 산물이다.

정보력이 사회의 힘이고, 지식을 지배하는 자가 4차 혁명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한민족은 인쇄 혁명과 문자 혁명으로 정보·지식 혁명의 토대를 누구보다 먼저 쌓았다. 지식을 추구하는 DNA가 핏속에 흐르는 한국인이 세계 역사를 지배할 날이 올까. 언어와 문자는 사고와 지성을 연마하는 도구다. 한글을 잘 다듬고 다루는 데 미래를 여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

한글은 과거 유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숨 쉬고 현재를 살아간다. 우리는 한글로 생각을 전하고, 일상을 누리고, 상상을 쓰고, 흥을 더한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이다'라는 경구가 맞는다면 '당신이 쓰는 글이 곧 당신이다'도 성립할 것이다. '한글은 당신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상설 전시관의 마지막 전시 영상물 제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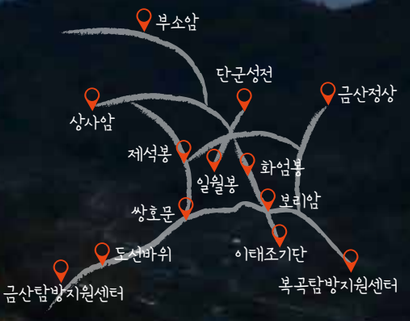
5



1 최초의 국어 교과서. 책 이름이 '국어'가 아니라, 이야기 제목이어서 친근감을 준다. 2 1949년 김동훈이 개발한 5벌식 한글 타자기. 타자기는 한글 기계화에 크게 기여했다. 3 1536년 세워진 최초의 한글 영비 4 한글박물관의 기획전시 '문자 혁명'. 남들보다 일찍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를 비교했다. 5 한글박물관 외경

02
위대한유산

기암괴석과 청옥빛 바다 그리고 작은 섬들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300리 뱃길을 따라 이어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길로 꼽힌다. 우아한 청옥빛을 뽐내는 남해 바다와 구불구불 해안을 따라 보석처럼 박힌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경관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을 만하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금산은 535㎢에 달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중 유일한 산악공원이다.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웅장한 산과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바다 풍경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1 한겨울에도 푸르른 루모라고사리
2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가장 큰 '줄사철나무'. 금산 정상 부근 해발 700m 기암괴석에 붙어서 자생하고 있다. 3 금산 동쪽 전망대에서 바라본 상사암

비단을 두른 듯, 발길 닿는 곳마다 절경

금산(錦山)은 이름 그대로 비단처럼 아름다운 산이다. 흔히 이름난 명승에는 8경이니 10경이니 하는 명소가 있는데, 금산에는 무려 38경이 전해 내려온다. 38경 대부분은 자연이 만들어낸 기기묘묘한 형태의 바윗덩어리들이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신비한 기암괴석이 경탄을 자아내고, 봉우리를 오를 때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남해의 풍경은 산행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해준다.

금산이 품은 절경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 역사와 전설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던 원효대사부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 나선 진시황의 신하 서복에 이르기까지 간절했던 발걸음들이 바위 곳곳에 박혀 있다.

금산은 보타산에서 보광산으로, 보광산에서 다시 금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보광산이라는 이름은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이 산을 찾았을 때 산이 엄청난 빛을 발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원효대사가 이 산에 올라와 기도하며 지은 절 보광사가 바로 보리암의 전신이다.

'금산'은 태조 이성계가 내린 이름이다. 고려말 남해로 내려와 왜구를 토벌한 이성계가 이 산에 올라 백일기도를 드린 뒤 조선을 건국했다고 한다. '만약 왕이 된다면 산 전체에 비단을 둘러드리겠다'고 기도했던 이성계는 '산을 비단으로 덮을 수는 없으니 대신 비단 금(錦) 자를 써서 금산이라 하면 어떻겠느냐'는 신하의 제언에 따라 이 산을 금산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남해가 '보물섬'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도 금산과 관련이 있다. 진시황의 신하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배에 보물을 싣고 동쪽으로 향하다 남해까지 와서 보물의 일부를 금산 어딘가에 묻어놨다는 전설이 있다. 두모마을에서 출발하는 금산 등산로 중간쯤에 거북 형상 바위가 있는데, 여기 새겨진 석각이 서복이 남긴 글씨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는 서복의 석상도 있다. 2014년 남해에서 서복을 주제로 한 한·중 학술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을 때 중국 학자들이 가져와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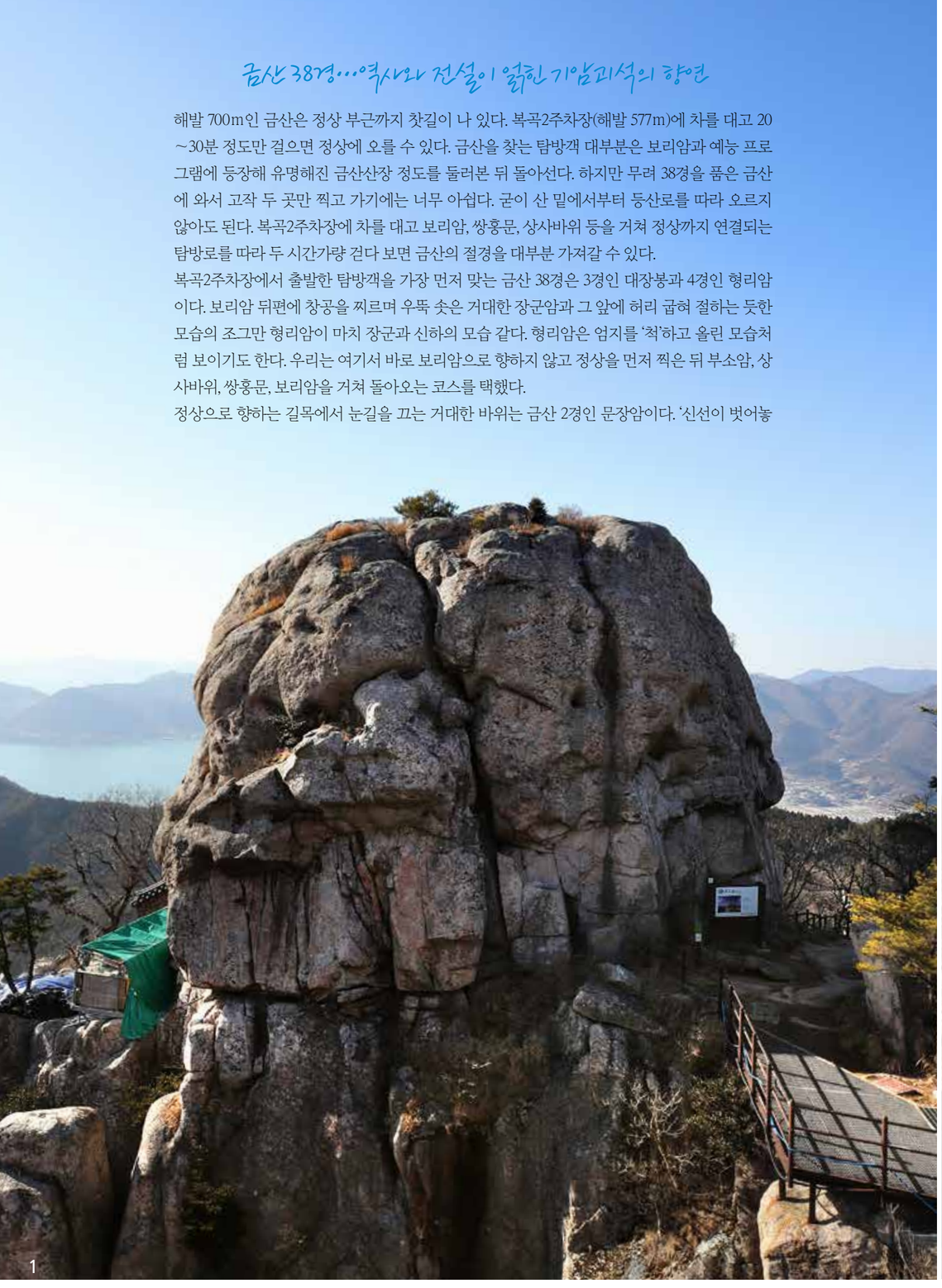
금산 38경…역사와 전설이 얽힌 기암괴석의 향연

해발 700m인 금산은 정상 부근까지 찻길이 나 있다. 복곡2주차장(해발 577m)에 차를 대고 20~30분 정도만 걸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금산을 찾는 탐방객 대부분은 보리암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유명해진 금산산장 정도를 둘러본 뒤 돌아선다. 하지만 무려 38경을 품은 금산에 와서 고작 두 곳만 찍고 가기에는 너무 아쉽다. 굳이 산 밑에서부터 등산로를 따라 오르지 않아도 된다. 복곡2주차장에 차를 대고 보리암, 쌍홍문, 상사바위 등을 거쳐 정상까지 연결되는 탐방로를 따라 두 시간가량 걷다 보면 금산의 절경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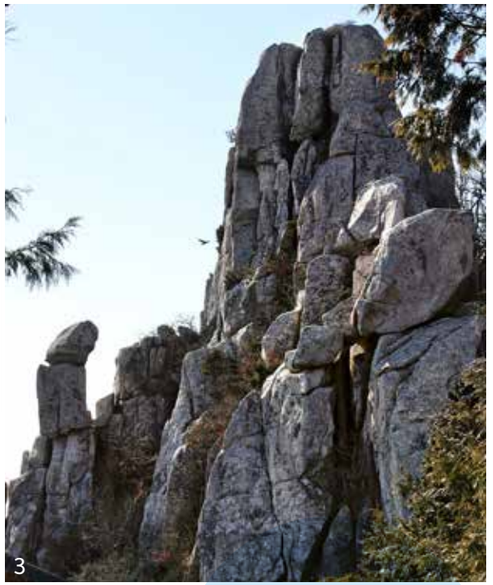
복곡2주차장에서 출발한 탐방객을 가장 먼저 맞는 금산 38경은 3경인 대장봉과 4경인 형리암이다. 보리암 뒤편에 창공을 찌르며 우뚝 솟은 거대한 장군암과 그 앞에 허리 굽혀 절하는 듯한 모습의 조그만 형리암이 마치 장군과 신하의 모습 같다. 형리암은 엄지를 '척'하고 올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보리암으로 향하지 않고 정상을 먼저 찍은 뒤 부소암, 상사바위, 쌍홍문, 보리암을 거쳐 돌아오는 코스를 택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눈길을 끄는 거대한 바위는 금산 2경인 문장암이다. '신선이 벗어놓고 간 나막신'이라고 해서 '목혜 바위'라고도 불린다는데, 듣고 보니 정말 커다란 나막신처럼 생겼다. 문장암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바위에 조선 시대 유학자인 주세붕 선생의 친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조선 중종 때 대사성을 지낸 주세붕 선생은 전국을 다니며 풍류를 즐기다 남해에 있는 금산이 명산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쌍홍문(금산 15경)을 통해 정상까지 오른 뒤 이 바위에 '유홍문 상금산'(由虹門 上錦山 : 홍문으로 말미암아 금산에 오르다)이라는 글씨를 새겨넣었다고 한다.

문장암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금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망대'다. 이곳이 바로 금산 1경이다.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인 금산과 광활한 남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망대에는 고려 시대부터 사용했던 우리나라의 최남단 봉수대가 복원돼 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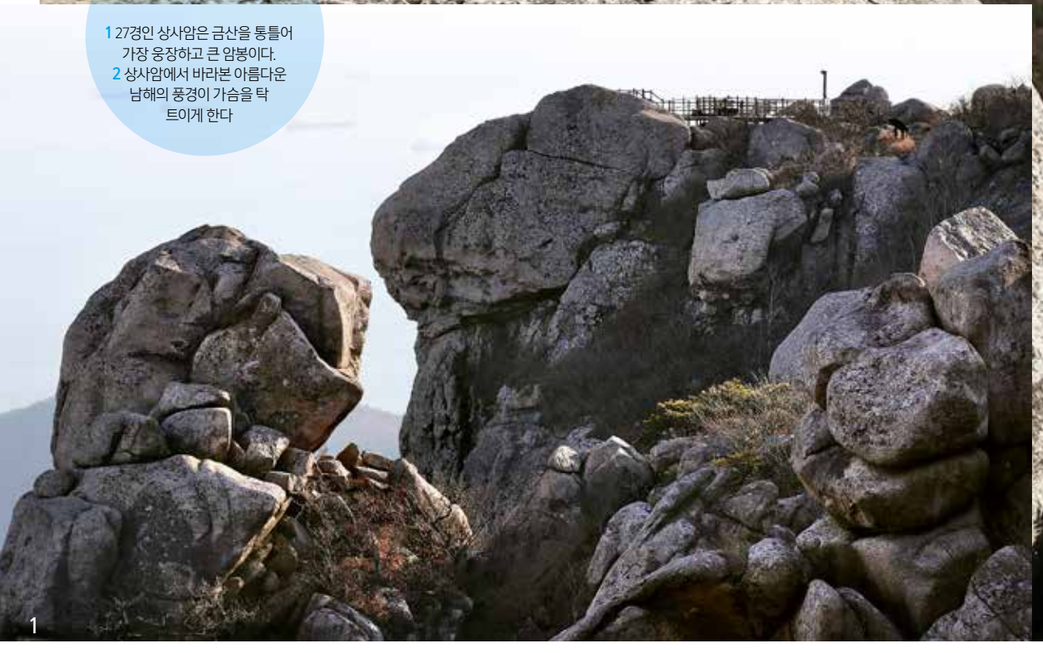
1 사람의 뇌를 꼭 빼닮은 부소암
2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거대한 나막신 모양의 바위에는 조선 시대 유학자 주세붕의 친필이 새겨져 있어 문장암이라 불린다. 3 거대한 장군암과 허리 굽혀 절하는 듯한 모습의 형리암은 마치 장군과 신하의 모습처럼 보인다.
4 금산 정상에는 고려 시대부터 사용했던 봉수대가 남아있다.

4

망대에서 내려와 향한 곳은 부소암이다. 34경인 부소암은 기이한 모양으로 탐방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거대한 둥근 모양의 바위가 사람의 뇌를 꼭 빼닮았다. 일부러 깎아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형상을 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기이한 바위 너머로 보이는 남해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다. 부소암에는 중국 진시황의 아들 부소가 이곳에서 귀양살이하고 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부소암은 바위를 등지고 있는 암자의 이름이기도 하다. 지금은 옛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중이다.

부소암에서 발길을 돌려 금산 능선 서남쪽 끝에 솟아있는 상사바위로 향했다. 27경인 상사바위는 금산을 통틀어 가장 웅장하고 큰 암봉이다. 봉우리에 오르니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금산과 섬들이 점점이 박힌 아름다운 남해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곳은 동쪽 절벽에 서 있는 보리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하다. 반대로 상사바위의 웅장한 자태는 보리암에서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다. 상사암에는 유난히 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상사병에 걸린 한 젊은 남자가 이 바위에서 여인과 사랑을 맺었다는 전설도 있고, 부잣집 주인의 딸을 사랑한 머슴이 상사병으로 죽은 뒤 뱀으로 변해 딸의 몸을 감아 떨어지지 않자 이곳으로 딸을 데려와 굿을 한 뒤 뱀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도 있다.

1 27경인 상사암은 금산을 통틀어 가장 웅장하고 큰 암봉이다.
2 상사암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해의 풍경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1

2

1 금산의 관문인 쌍홍문.
원효대사가 '두 개의 굴이
쌍무지개 같다'고 해서 쌍홍문이라
불렀다. 2 쌍홍문 안쪽에서
바라본 남해의 풍경

'금산의 관문' 쌍홍문 지나 보리암으로

상사암에서 내려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좌선했던 곳이라는 좌선대(20경)를 거쳐 쌍홍문으로 향했다. 쌍홍문은 산 밑 금산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를 따라 보리암으로 갈 때 지나게 되는 관문이다. 암벽에 커다란 구멍 두 개가 나란히 나 있는 것이 두 눈에 구멍이 뚫린 해골바가지처럼 험상궂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고 했던가. 원효대사는 '두 개의 굴이 쌍무지개 같다'고 해서 쌍홍문(雙虹門)이라 불렀다고 한다. 동굴처럼 생긴 쌍홍문 안으로 들어가 뒤를 돌아보니 둥근 원 안으로 보이는 다도해의 풍광이 일품이다. 석가모니가 금산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인도로 돌아갈 때 이 문을 통과해 돌배를 타고 내려가다 금산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인 세존도(36경)에 부딪혀 섬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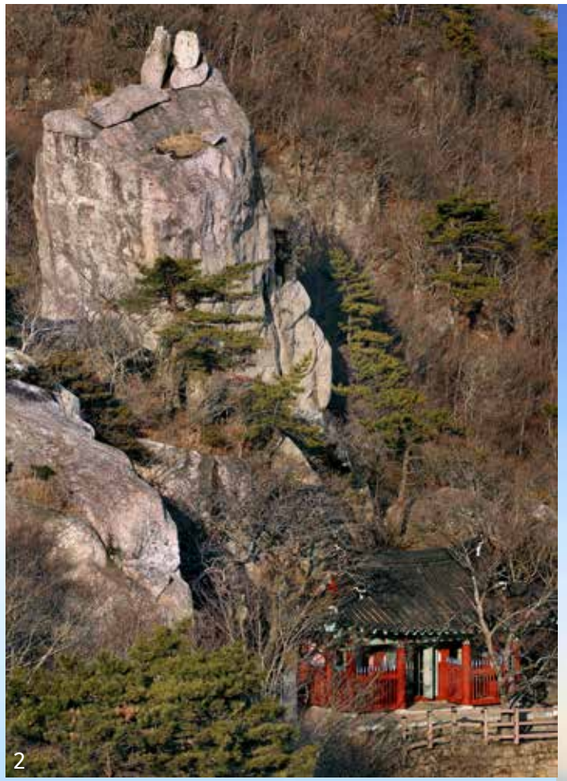
쌍홍문에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보리암이다. 금산 하면 누구나 보리암을 먼저 떠올릴 만큼, 어쩌면 금산보다 더 유명한 암자다. 보리암은 강화도 보문사, 양양 낙산사와 함께 3대 관음 기도 도량으로 꼽힌다. 이곳에서 정성 들여 기도드리면 한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고 한다.

보리암 경내에는 남해를 내려다보는 해수 관음상과 작은 삼층석탑이 하나 서 있다. 삼층석탑이 있는 자리는 금산에서 뻗어 나오는 기운와 남해에서 불어오는 기운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다. 신기하게도 이곳에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바늘이 정북 쪽을 가리키지 못하고 계속 춤을 춘다고 한다. 삼층석탑이 서 있는 절벽은 '탑대'라고 해서 금산 5경으로 꼽힌다. 이 석탑에는 가락국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에 얽힌 전설이 내려온다. 인도에서 김해로 오던 허황옥의 배가 심한 풍랑에 자꾸 되돌아가자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파사석(婆娑石)을 배 밑바닥에 깔고 김해로 왔는데, 이 석탑이 바로 그 파사석으로 만든 탑이라는 것이다.

보리암은 소위 '기도발'이 잘 먹히는 명당으로 꼽히지만,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드린 곳은 보리암이 아니라 탑대에서 동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삼불암 아래쪽이었다. 9경인 삼불암은 누워 있는 바위 한 개와 서 있는 바위 두 개로 이뤄져 있다. 세 개의 바위가 부처님 좌상 같다고 해서 삼불암이라고 부른다.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바위 세 개가 다 누워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내가 한 나라의 재상이라면 바위 하나를 올려주고, 왕이 될 재목이라면 두 개 올려달라. 만약 고구려 옛 땅까지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이라면 세 개를 올려달라'고 기도를 드리자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면서 바위 두 개가 일어나 앉았다고 한다.

절경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산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덧 상사바위 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갔다. 38경을 모두 훑진 못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출발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레지 꽃이 금산을 아름답게 수놓는 계절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1


2

3

1 상사암에서 바라본 보리암
2 보리암 동쪽 건너편의 삼불암 아래쪽에 조선태조기단이 있다.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백일기도를 드린 곳이다. 3 보리암은 강화도 보문사, 양양 낙산사와 함께 3대 관음 기도 도량으로 꼽힌다.

03

위대한유산

한국의 브랜드 가치
고려인삼

고려인삼은 일본이나 중국의 인삼과 비교해 효능과 맛, 향 그리고 가격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고려인삼은 일찍이 아시아 각국 왕실의 최고 진상품이 됐고, 고려라는 국호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눈 내린 금산군의 인삼밭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

고려인삼(Korean ginseng·高麗人蔘)은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고려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온 국민에게 심어준 일화가 있다.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은 고려인삼을 중국에 판매하러 갔지만 중국 상인들의 담합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때 동행한 추사 김정희가 임상옥에게 붓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써 줬다. '百尺竿頭進一步' (백척간두진일보) 백척간두의 위험에서도 뒷걸음치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더 나가라는 뜻이다. 임상옥은 비장한 각오로 중국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고려인삼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헐값에 팔기보다는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놀란 중국 상인들은 잘못을 빌며 오히려 훨씬 비싼 가격에 고려인삼을 매입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덕분에 임상옥은 고려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 이 일화는 2001년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다룬 MBC 드라마 '상도'를 통해서도 소개됐다.

고려인삼은 실크로드를 통해 동남아는 물론, 멀리 아라비아 등지까지 팔려나갔다. 덕분에 고려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벽란도를 통해 'COREA'라는 단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인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성덕왕이 200근의 삼을, 효성왕과 경문왕이 각각 100근의 삼을 당나라에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삼재배 기록은 조선 후기 문헌인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등에 등장한다. 조선 시대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의 지시로 인삼이 재배되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인삼이 유명한 것은 유효 사포닌 성분 덕분이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등이 지난 2004년 조사한 결과, 인삼의 사포닌 성분 가운데 특이성분으로 알려진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의 경우 고려인삼에는 34종, 미국 화기삼에는 13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인삼에는 화기삼에는 없는 Rh2, Rf, Rg3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h2는 항암에, Rf는 생체신호 전달체계에 효과가 있으며, Rg3는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성분이다.

[풍기 인삼박물관 제공]

1 금산군 수삼센터에 전시된 인삼 2 일제강점기 개성의 인삼 건조 풍경

국가중요농업유산 충남 금산

오늘날 인삼 재배지로 충남 금산을 빼놓을 수 없다. 금산의 인삼 농업은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고 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될 만큼 국내 인삼 생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산은 개성·풍기와 함께 조선 시대 대표적 인삼 생산지였으며, 1923년에 금산삼업조합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인삼 재배·가공·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금산은 해발 400~700m의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로, 고려인삼이 자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비옥한 토양과 금강 지류의 농업용수도 풍부하다.

금산에서도 대표적인 경작지로 손꼽히는 곳은 제원면의 '포평뜰'이다. 포평뜰에는 금산 인삼 홍보전시관인 삼락원이 세워져 있다. 삼락원에서 만난 금산인삼조합의 이용기 회장은 "포평뜰은 1천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인삼 생산지이자 금산의 얼굴마담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금산은 여타 지역과 달리 씨를 직파해 기른다. 인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지 선정과 관리다. 한번 선정하면 한자리에서 최소 3년, 길게는 6년을 재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땅심을 기르기 위해 호밀 등 다양한 작물들을 미리 2년 정도 키워 최적의 토양을 만든다. 금산에서는 토질 개선을 위해 다른 곳의 흙을 갖고 와 붓는 '객토'를 하는 농가가 많다.

차를 몰고 금산군 부리면 선원1리로 향하던 중 인삼밭을 객토하고 있던 주민 양희두 씨를 만났다. 양씨는 "새 흙을 받아서 거름을 넣고 2년을 묵혀 관리한 뒤 종자를 심는다"고 말했다. 실제 금산에서는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모두 객토를 하는 차들이다. 부리면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제원면 쪽으로 들어오니 밤새 하얗게 눈이 내렸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 인삼밭 위로 내린 하얀 눈은 평소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1 제원면의 인삼밭. 사그라진 줄기 아래 인삼이 자라고 있다. 2 대표적인 인삼 경작지 포평뜰 3 인삼밭 객토 현장의 농민

1 수삼센터에 전시된 인삼
2 독특한 맛의 인삼 튀김
3 금산만의 다양한 인삼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는 국제인삼유통센터
4 인삼 막걸리
5 먹세나 식당의 삼계탕

빼놓을 수 없는 인삼 먹거리와 쇼핑

국내 최대 인삼 산지인 충남 금산은 전국 인삼의 70%가량을 유통한다. 타지역에서 생산된 인삼도 대부분 금산에서 팔려나간다는 얘기다. 명실상부한 인삼의 본고장인 셈이다. 금산읍 신대리에는 금산수삼센터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등 현대화한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백화점 같은 건물에서 관광객들이 쉽게 쇼핑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십 가지 다양한 금산 자체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때마침 설 대목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쇼핑백에 다양한 홍삼 제품을 담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이곳에는 금산 인삼의 자부심이 있어 정관장이나 한삼인 같은 브랜드는 입점해 있지 않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밖으로 나오니 왼편에 수삼센터 건물이 보인다. 수삼센터는 인삼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인삼들이 진열돼 있다. 5호점의 이상옥 대표는 가성비 가장 좋은 인삼을 소개해 달라고 하자 "외형은 못났지만, 잔뿌리가 잔뜩 붙은 것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귀띔한다. 실제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잔뿌리에 많다. 750 g 에 2만원을 주고 못생긴 인삼을 사 들고 나왔다.

금산에 왔으면 인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 수삼센터 밖으로 나오니 추운 날씨에도 인삼 막걸리가 가게 밖 테이블에 잔뜩 진열돼 있다. 인삼 막걸리 외에도 눈에 띄는 먹거리가 즐비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삼 튀김이었다. 별맛이 있을까 싶어 지나치려는 순간 '다모아 인삼튀김' 주인이 한번 먹어보고 가라고 권한다. 튀김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구마처럼 달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했다. 인삼을 튀기면 이렇게 고구마 맛이 난다고 한다.

다양한 인삼 먹거리 중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것은 인삼 삼계탕이었다. 읍내 큰 길가에 있는 '먹세나'는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파는 식당이다. 쫄깃한 토종닭의 육질과 깔끔함이 돋보이는 국물 맛 덕분에 뚝배기가 바닥을 드러내도록 먹었다.

2021 인삼 엑스포가 열리는 경북 풍기

우리나라 인삼 농사에서 금산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경북 영주의 풍기다. 풍기는 고려인삼이 가장 먼저 대규모로 재배된 곳으로 자부심이 높다. 풍기인삼은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 선생이 재배를 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무거운 산삼 공납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산삼 씨를 채취해 풍기읍 금계리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다. 풍기는 금산보다 15년 빠른 1908년에 풍기삼포조합을 결성해 체계적으로 인삼 농사를 관리해왔다.

소백산 자락에 있는 영주는 소백산의 풍부한 유기물과 대륙성 한랭기후가 만나 인삼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풍기 지역의 평균 해발은 200m가량으로, 땅바닥은 배수가 잘되는 자갈과 모래가 많아 인삼 농사의 최대 적인 곰팡이가 잘 번식하지 않는다. 풍기는 객토 사업이 왕성한 금산과 달리, 주변에서 땅심이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밭을 계약해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영주 인근 봉화군의 인삼밭

풍기읍사무소 건물에 있는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를 찾아 이창구 위원장을 만나 풍기 인삼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은 뒤 소백산 자락에 있는 인삼박물관으로 갔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상황이지만, 취재를 위해 미리 요청해둔 덕분에 박물관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풍기인삼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흥미를 끌었던 것은 1년근부터 6년근까지 인삼이 밭에 심어진 모습을 모형화한 것으로, 한눈에 인삼 생산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풍기의 경우 재배 방법이 금산과 달랐다. 인삼박물관 이학주 관장은 "씨를 뿌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것을 재배할 밭으로 옮겨심는 이식 삼이다. 씨앗을 직파하는 금산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풍기인삼의 또 다른 특징은 논에 삼을 심는 '논삼'이라는 점이다. 이창구 위원장은 "밭에 심는 밭삼과 달리 논삼은 사포닌 성분이 더 다양하다"고 말했다. 풍기는 금산만큼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곳이니만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올해 9월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침체한 국내 인삼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

3

4

1 풍기 인삼박물관의 인삼 식재 모형 2 소백코리아의 인삼 클렌징
3 풍기인삼건강원 주인이 작업 도중 홍삼을 보여주고 있다. 4 황토골 식당의 인삼석갈비

1

곳곳에 보이는 인삼건강원

인삼 농사의 본고장답게 풍기에는 인삼건강원이 곳곳에 눈에 띈다. 풍기인삼건강원 문을 열고 무작정 들어갔더니 마침 찐 홍삼을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가게가 영주에만 200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농민들이 찐 홍삼을 이곳에 가져오면 진액을 짜주는 곳이다.

풍기읍내를 다녀보면 인삼을 소재로 한 먹거리가 자주 눈에 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삼 불고기다. 황토골 식당은 홍삼액에 쇠고기를 절여 숯불에 구워내는 메뉴가 있다. 뜨거운 돌에 인삼 조각과 함께 나오는 인삼석갈비는 마치 연탄불고기처럼 잘 구워져 겉 부분은 바싹하고 안은 육즙이 촉촉했다. 인삼 불고기는 풍기를 들른 사람들은 꼭 찾아봐야 하는 맛이다.

다음으로 인삼홍삼센터를 찾았다. 금산에 비하면 규모가 다소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쇼핑센터가 다섯 군데나 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45개 상점이 성업 중이었다. 수삼판매장과 홍삼 판매장이 구분된 금산과 달리 이곳은 수삼과 홍삼 등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홍삼을 활용한 클렌징 크림 등 다양한 화장품도 개발됐다.

다소 썰렁한 느낌이 들어 상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코로나19 영향 탓이 적지 않다고 했다. 상인들은 올 10월로 잡혀있는 영주 세계인삼엑스포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축제장을 찾는 고객들이 쓰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기대에 찬 말을 듣는 이창구 위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코로나19로 엑스포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이때야말로 거상 임상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